불자 세상보기

"음주운전 죽음으로 가는 행위"

97년 음주운전으로 1천4백명 사망
"이웃에게까지 피해"…건전 술문화 절실

10여년동안 트럭운전을 해온 박 모씨는 지난 6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박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구속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장까지 잃었다. 구속됐다가 사고 뒤치다꺼리 하는 변호사 경비마저 2천만원이나 들었다.

음주운전 끝에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사고를 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과 이웃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과보를 받는다. 한 해에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천명이 넘는다. 97년 한 해 동안에는 1천4백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은 이보다 많은 3만6천여명. 지난 1년동안 뺑소니 사고 2만3천건 가운데 28%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 수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면 음주운전자는 더욱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0%가 늘어난 5만8천여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가운데 약 5백명을 구속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작년에 비해 70%나 늘고 있으며 여성 음주운전자들도 서울의 경우 한달 평균 100명이 넘어서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개 도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3천억원. 직접적인 사고 피해 외에 운전면허정지 등으로 일을 못해 발생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세계적인 '술고래'인 한국인의 음주로 인한 전체 손실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 95년 기준으로 13조8천3백96억원. GNP의 3.97%에 달한다. 이가운데 순수한 알코올 소비지출은 불과 4조560억원. 나머지는 음주로 인한 질병과 교통사고, 조기사망, 생산성손실 등에 따른 부차적 손실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처럼 우리의 무절제한 음주습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퇴폐문화 조장, 산업재해, 가족불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집단적 음주문화가 발달해 적당히 마시기 어렵고 폭음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기이한 한국인의 술문화가 무절제한 음주습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술잔돌리기와 폭음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술문화. 이제는 '모이면 마셔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화, 건전한 사교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술은 모든 잘못의 시초"

"술 마시기를 즐기면 생업을 잃고도 살아가는 것을 걱정치 않는다."(분별선악소기경) IMF관리체제 이후 오히려 늘어난 음주 행태를 보여주는 말 같다. 경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법문도 있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에 취하면 감각기관들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높은 소리로 웃는다든가 사나운 말을 해서 선량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제법집요경〉. 잘못된 음주습관은 나와 사회를 해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毒氣)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대애도비구니경〉.

국내 인간복제술 첫 성공

교계 "인간존엄성 파괴"우려 목소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국내 연구팀이 체세포핵(核)을 이식한 난자세포 배양에 성공, 인간복제 기술이 세계 두 번째로 완성직전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복제인간 출현을 둘러싼 윤리논쟁이 한창이다.

경희대병원은 14일 산부인과 불임클리닉 김승보-이보연 교수팀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30대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 난자에서 세포핵을 제거하고 대신 체세포 핵을 삽입한 뒤 세포분열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람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없이도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반반씩 물려받는 수정란 대신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자 전부를 물려받는 복제인간이 등장하는 것.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종교계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복제시험을 중단하라"는 비난성명을 내고 항의움직임을 거세게 나타내고 있다. 10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15일 경희대 정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인간복제 실험은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야기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모한 탐구욕"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적절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장영달(국민회의)·이상희(한나라당)의원이 97, 98년에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인간의 생식세포·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금지 △인간·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이식하는 실험 △인간의 태아나 사망자로부터 정자·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드는 실험 등을 연구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유전학적 연구는 종교계, 공무원,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간 및 동물 복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위원회에서 밝히는 등 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실험이 가능하게 된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부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유일한 가치와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인간 복제 실험은 물론 동물복제 실험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참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용정 과학사상 편집인=하나의 인간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낙태와 같은 형태로 죽어간다. 생명체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은 살생죄를 범하기 마련이다. 설령 복제 인간이 탄생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새로운 인간의 고독과 소외 등 실존적인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성격의 인간들만 존재하는 사회, 가족개념의 붕괴 등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동흔 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인간 복제 기술을 응용한 난치병 치료용 장기의 생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식물의 유전자 변형, 생명현상의 탐구를 위한 유전공학 기술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생 인간 창조나 군사·범죄용 인간의 복제 등 인간 복제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명공학의 선책적 활용을 위한 길을 터주어야 한다.

▲강인성 대구경불련 회장=인위적인 인간 복제는 자연의 인(因, 1차적 원인)과 연(緣, 2차적 환경)에 따른 조화로운 인간의 탄생이란 인연법을 깨뜨리는 부조화의 극치다. 만물이 불성을 가졌지만, 가장 부처님과 닮은 인격의 신성함을 파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스런 악업이다.

▲박완순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처장=인간 체세포 복제기술을 특정 장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상업성을 띠게 마련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이웃에게 기증하는 거룩한 장기기증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실현되는 최후의 보살행이다. 반면 인간 복제 기술의 상용은 인간의 부속품화·상품화는 물론 '인간의 주문생산'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행복은 물질아닌 정신적 풍요"

국민행복감 한국 23위
가난한 나라가 상위권

'행복은 GNP 순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감에서 온다는 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9일 영국의 LSE대학 보고서를 인용,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대학의 로버트 우스터 객원교수는 최근 전세계 54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가난한 나라가 상위권을 휩쓴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하위권으로 처졌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국민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풀이했다.

◇국가별 국민행복감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방글라데시	32	영국
3	나이지리아	37	프랑스
5	인도	41	스위스
8	중국	42	독일
10	터키	44	일본
12	남아공	46	미국
18	메시코	54	몰디브
23	한국		

시론

늘어나는 주부 매춘

"데이트 좀 하고 그럭저럭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외래에서 만나 상담을 하고 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다. 그의 말을 챙겨보면 예사로운 데이트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마음맞는 주부와 서로 연락이 되면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동침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다. 신문 사회면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변종 데이트에 대한 실증을 보는 느낌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 정도를 벗어난 남녀간의 애정문제에 가장 흔하게는 간통이란 것이 있다. 요새는 간통이 아주 흔한 용어가 돼 버렸고 매춘이란 용어가 판을 치는 추세다.

이근후
〈이대의대 교수〉

"쾌락추구 생계 유지등 매춘 원인은 사회 병리현상"

IMF로 경제가 어려워진 요즘 경제난을 빌미로 성도덕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문란해졌다. 가정주부가 폰팅 등을 통해 매춘행위를 하는가 하면 여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소위 원조교제라는 것을 통해 매춘을 하고 있다. 또 실업자가 된 미혼여성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여대생들이 '일일도우미' 채용 광고를 보고 매춘에 가담하고, 인터넷이나 폰팅 등을 통한 익명성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는 충격보도가 연일 터진다. 이러한 매춘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체계화된 알선을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하니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매춘의 알려진 원인들은 어떠한가. 신분상승을 위한 매춘이 있는가 하면 자립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와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구 때문이란 주장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까지 외도나 매춘의 수동적인 대상이었던 여성 자신의 성적 욕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때문이란 설명은 퍽 설득력이 있다.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하나의 경직된 가치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기존의 윤리에 어긋나는 사고나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합리화하고 있다. 특히 쾌락적 추구는 성적 욕구의 의식화 과정에서 점점 노골화되고 새로운 윤리적인 기준도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개인이 갖는 의식의 변화를 다분히 쾌락적으로 변용시키는 데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겠다.

정보화의 총아로 등장한 여러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기존의 성의식을 쉽게 변화시키고 성의 문란에 한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종교의 힘으로 그나마 제어되어 왔었던 것이 급박하게 허물어짐으로써 어떻게 해 볼 방법을 잃었다고 암담해 하기도 한다.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처해있는 시기와 환경적인 요인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금지 일변도는 현실적인 효력이 없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자율화에 의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미루기에도 아직은 정서나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규제와 통제, 소외된 매춘계층의 선도,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요인의 봉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남편의 실직등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정 주부들의 매춘이다. 가정의 핵심인 주부가 흔들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이야말로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가정을 건강하고 단란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주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당사자인 주부는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가족윤리 의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 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